

영화 〈죽어도 좋아〉의 제한상영가 등급부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 본지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찬반 양론의 두 가지 글을 게재하였다.

표현의 자유가 곧 공개의 자유는 될 수 없다

글 김수남 청주대 교수 · 한국영화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오늘날 영화를 비롯한 비디오, 게임 등 영상물은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물의 사회성보다 개인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창작자들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고부가가치의 영상물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정서를 혼란시키고 정통적인 윤리성에 도전하여 객관적인 도덕성을 마멸시키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창작행위는 한국 문화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디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문제는 예술가의 양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술가의 양심에 신뢰감을 실을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등급 판정의 위헌을 지적함으로써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현실에서 이제 보여줄 것과 안 보여줄 것의 결정은 창작자에 달려 있고 간접적으로 이에 호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관객의 문화수준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다. 이러한 즘음의 한때 원조교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어 당사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계도를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때에도 원조교제를 변태적으

로 묘사한 영화 〈거짓말〉이 등장하여 떠들썩하기도 하였다. 이제 70대 노인의 성생활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영화 〈죽어도 좋아〉가 예술성과 포르노성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 영화의 무계를 예술성에 실어주는 사람들은 황혼의 건강한 성생활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것이요, 이를 거부하는 입장은 우리의 삶의 스승이 되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일상생활을 허름한 안방을 무대로 마치 섹스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어쨌든 영화의 일반상영관 공개 여부를 놓고 논쟁을 일으켰던 〈죽어도 좋아〉가 지난 7월 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제한상영관이 없는 국내 사정으로 볼 때 제한상영가 등급은 공개 불가의 처지가 된 것이다. 이 영화의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의 사유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자지를 입으로 빠는',* 성기가 노출된 7분여 구강성교의 포르노성 장면을 지적하여 "내용 및 표현기법이 18세 관람가 기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일반 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반

* 이 표현은 선정성이란 의미 전달이라기보다 우리 정서에 반하는 수치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다.

사회적인 내용인 경우”라고 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는 판정했다.

이 결과에 대해 ‘젊은영화비평집단’의 반박을 시작으로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이 ‘영등위 개혁을 위한 문화예술인 선언’을 통해 〈죽어도 좋아〉가 여러 차례의 시사회와 토론회를 통해 예술성과 사회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므로 영화창작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영등위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였다.¹⁾

그러나 영등위는 영화 〈죽어도 좋아〉에 대한 재심에서 10대 5의 표결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다시 부여하였다. 이에 관해 재심에 참여했던 영등위의 세 명의 위원들이 심의과정과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뜻으로 ‘영등위 사퇴 성명서(8월 28일)’와 함께 당 위원직을 사퇴했다. 성명서에 제시한 사퇴 사유는 재심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영등위가 ‘국민을 위한 민간 서비스 기관’이라는 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이 문제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까지 일반상영관 공개 여부가 긍정적으로 논의된 바 있어, 앞으로 있을 제 2차 재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죽어도 좋아〉의 오랄섹스 장면 자제는 상식적인 원칙

필자는 본고를 통해 영등위가 〈죽어도 좋아〉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을 내린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고를 전개하기에 앞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다면, 필자가 비디오로 본 문제의 장면은 등급



(죽어도 좋아)

위의 주장처럼 선명하게 부각되지도 않았고 작품 전개상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위의 결정이 왜 타당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은 무한한 ‘표현의 자유’가 곧 무한한 ‘공개의 자유’가 될 수 없다는 소신에서이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공개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 법적으로 언급하였다. 문제는 그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석의 견해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보편적인 견해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보편적인 견해는 세계 영화계의 제한상영관 현황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민예총이 성명서를 통해 〈죽어도 좋아〉의 제한상영가의 불가 이유로 “첫째, 〈죽어도 좋아〉에 드러나는 성기노출 장면이나 구강성교 장면은 ‘성기노출’이라기보다 70대 부부의 성과 사랑을 표현하는 ‘예술적’ 동기의 결과물이다. 둘째, 이 영화가 일반상영관에서 상영될 경우 성기노출과 구강성교 또는 그 이상의 성적 표현이 담겨 있는 영화들이 마구잡이로 상영될 빌미를 제공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영화 자체의 작품적(예술적) 맥락을 살리는 성 표현과 상업적 포르노의 자극적 성 표현은 예술

1) 2002년 8월 26일 성명서 참조.

적·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구분이 가능하므로 기우에 불과하다. 셋째, 관객들은 포르노와 일상적이고 담담한 성 표현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며, 그 ‘눈들’ 속에는 노골적인 상업적 포르노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가능성이 이미 담겨져 있으니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한 처사이다”²⁾라고 주장하였다.

민예총이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보고 필자의 이해를 정리하자면, 민예총의 오럴섹스 장면에 대한 시각은 예술적 표현으로서 필요하다면 보여주어야 하고 그 결과가 관객은 물론 일반 한국민의 정서나 차후 유사한 과다노출 및 행위를 지향하는 창작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결코 미치지 않을 확신에 차 있다. 그래서 이를 부정적으로 보려는 영등위의 처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이라고 지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예총의 성명서는 세계 영화계의 자율적 등급 상황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영등위의 심의 관련 규정을 애써 무시하려는 저의가 돋보인다. 민예총을 비롯한 사회개혁단체의 영등위의 결정에 대한 돌발적이며 지나친 단체행동에 대해서 필자가 애써 이해할 수 있는 점은 이번 기회에 영등위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개선해야겠다는 무리수로 추리할 수 있다. 그러나 <죽어도 좋아>의 오럴섹스 장면을 놓고 논쟁하는 마당에 구조적인 문제로 비화시켜 국민의 정서에 관련된, 나아가서 한국 영화문화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화 표현의 잣대를 담보로 다수의 국민을 혼란시키는 문

제제기는 신중히 고려했어야 했다.

문제의 장면을 놓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일부 선진국의 일반 영화상영관에서는 오시마 나기사의 <감각의 제국> (1976년)처럼 간혹 성기노출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영화가 상영되기도 한다. 그러나 구강섹스 장면이 일반상영관에서 상영되는 예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죽어도 좋아>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자지를 빠는, 구강섹스 장면을 예술을 앞세워 일반상영관에서 허용하지는 주장은 너무 앞선 고집이며 따라서 구강섹스 장면 때문에 <죽어도 좋아>의 제한상영 결정을 한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이다. 작품의 앞뒤 맥락을 살펴서 예술영화로 취급하여 구강섹스 장면을 허용하지는 생각 역시 그 예가 없다(물론 모든 것을 허용하는 덴마크나 네덜란드는 제외하고).³⁾ 그래서 포르노 극장(제한상영관)이 필요한 것이며, 선진영화국은 철저히 법을 지켜 어떤 경우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섹스 장면이 연출된 영화는 포르노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죽어도 좋아>의 예술성을 논하기 전에 구강섹스 장면이 나온다면 포르노성 영화로 취급하는 것이 세계 영화계의 상식인 것이다. 결론은 보여줄 것과 안 보여줄 것을 구분하는 것도 예술활동의 기본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에마누엘>과 <카리큘라>가 그 간격을 교묘히 모험한 영화상영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감독의 주장대로 꼭 예술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공개하여야 하는데 제한상영관이 없다면 특별 시사회 등을 이용하여 작업의 결과에 대해 인정받고, 일반상영관에서 보여줄 때는 상식적인 자율에 의해 문제의 장면을 자제해서 상영하면 될 것이다. 이처럼 한국적인 현실이 아니더라도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2) 앞 성명서 참조.

3)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국내심의기구의 개선방안 연구」, 영상물등급위원회, 2001, 194쪽.

논쟁한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영등위가 제시한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살펴보자. 이 기준은 ‘영화수입추진 및 영화·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에 명시되어 있다.⁴⁾ 문제의 장면에 관련하여 객관적 기준을 명시하자면, 제2장 제3조 ‘등급분류기준’의 제5항에 따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서, 등급분류기준 제3조 제4항 각호의 내용 및 표현기법이 18세 관람가 기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일반 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제한상영가로 분류하도록 규정하는 데에 따른다.

여기서 제3조 제4항이란 ‘18세 관람가’의 등급분류기준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및 내용을 청소년(18세 미만의 자)의 일반적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
2. 대사 및 영상에 있어서 청소년(18세 미만의 자)이 관람할 경우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폭력성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것
3. 기타 청소년(18세 미만의 자)이 관람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해를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이번 심의에서 ‘객관적 기준’의 적용은 성기노출이나 오럴섹스의 직접적 표현과 같은 ‘음란성’의 구체적 표현이 18세 관람가의 기준을 벗어난 경우라고 영등위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등위의 객관적 기준은 반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것은 오럴섹스가 구체적인 표현에는 해당되지만 음란성의 여부에 있어서는 주장하는 쌍방간의 입장에 따

라 큰 견해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필자로서 영등위의 심의기준에 대해 더 부가하자면, 제3조 제4항의 첫번째 사항의 적용으로서 〈죽어도 좋아〉의 주인공들의 행위가 대다수 노인들의 성생활에 대한 입장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자손들의 어른들에 대한 시각을 편파적으로 이해시켜 정서적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나를 고려해야 했다. 세번째 사항의 적용은 풍속에 관련하여 첫번째 사항의 우려가 우리의 풍속에 반하고 있음을 영등위가 강조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다시 말해, 영등위가 제한상영가의 객관적 기준의 잣대로서 선정성을 강조함으로써 〈죽어도 좋아〉의 문제 장면을 논함에 있어서 작품의 예술적 맥락을 우선하여 보자고 주장하는 관계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들 주장처럼 인터넷을 통해 이미 못 볼 것도 없는 현실에서 새삼스럽게 오럴섹스 장면을 작품의 맥락을 무시한 채 선정성 운운하는가에 대해 지적받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선정성이든 예술적 맥락이든, 문제의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 주든 어둡게 보여 주든, 보여줄 것과 안 보여줄 것을 구분 못하는 우리의 자존심이요 수치심이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영등위의 객관적 기준이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되었다고 하나 내부 기준이라는 한계이다. 그러나 필자가 듣기로는 영등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주체 세력의 합의하에 내부 기준이 만들어졌다면 비공식적 법적 기준으로서 우선은 유효하다고 사료된다.

예술성과 포르노성 논쟁의 법칙

동양에서 유일한 일본의 성인영화관에서조차 성기노

4)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집」, 2002. 8. 25~29쪽.

출은 포커스 아웃시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바가 있다. 세계 제2의 영화산업국인 인도의 경우는 그들 영화에서 키스 장면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은 키스 장면보다 더 고려되어야 할 공간 장면은 범죄로 인정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한국 영화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술은 치외법권이 아니다. 예술은 사회활동의 일부로서 인간의 관습과 제도에 도전하더라도 나름대로 자율적인 법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자율법은 사회구성원의 공감에 호응하는 범주 내에서 가능하며 우리는 예술사를 통해 반복적인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았고 반성함으로써 역사가 교훈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스 연극의 경우 잔인한 장면들을 무대 위에서 결코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그 결과를 드러내주기 위해 에퀴클레마(바퀴 달린 수레)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죽은 시체를 무대 위에 옮기는 등 공연 진행상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⁶⁾ 그러나 로마시대의 대중연회는 우리가 영화에서 빈번히 보았던 흥행목록으로 검투사나 맨손전투 등 상대자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잔인한 장면 연출은 물론이요, 마임이나 극의 형식을 빌려 대중 앞에서 도발적인 섹스 드라마를 연출하거나 헤리오가발루스 황제(3세기 초)의 경우는 배우로 하여금 실제로 무대 위에서 섹스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전해진다.⁷⁾

서기 476년 로마(서로마)가 멸망하면서 로마 연극은

기독교의 부상과 함께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로마 연극이 사악한 이교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극장예술을 말살하는 여러 가지 칙령을 내렸다. 서로마가 멸망하기 전에도 동로마 교회는 극장에 가는 교인들이나 배우들은 교회로부터 파문시켰다. 이로써 부도덕한 연극은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맞게 되었다.⁸⁾ 그 대신 성직자나 성가대원들에 의해 종교극인 전례극이 공연되었다.⁹⁾ 일반연극이 다시 부활되는 것은 로마제국이 멸망 이후 1,000년이 지난 1470년경(비공식적으로 1276년경)에 비로소 가능하였다.¹⁰⁾

이 역사의 교훈을 서술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고 목살해도 필자는 반론하지 않겠다. 다만 예술행위의 자유가 무얼 말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예술성과 포르노성의 논쟁'을 통해 제기하고 싶다. 한때 세계 영화계는 물론 공연예술계 심지어 음악, 회화 분야의 행위예술에서까지 신체의 적나라한 노출에 대한 예술성과 비예술성의 논란이 있었다. 결론은 신체의 노출은 선정적인 무엇을 자극하기보다 문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갈구하여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세계 영화계에서 이 논쟁은 1970년대 과도한 폭력과 섹스 분위기를 연출한 뉴아메리칸 시네마가 자리잡을 때까지 그리고 그 영향으로 새로운 영화가 세계 영화계를 지배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오늘날 신체의 적나라한 노출 논쟁은 예술행위 자체로서보다 예술행위의 공개적인 차원의 범주를 놓고 간혹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5) 한국 영화의 첫 키스 장면은 1954년 한형모의 <운명의 손>에서 윤인자와 이항의 입맞춤으로 당시 사회 이슈가 되었다.

6) Eedwin Wilson, Alvin Goldfarb, 김동욱 옮김, 「세계연극사」, 한신문화사, 75쪽.

7) 앞 책, 101~103쪽.

8) 앞 책, 112~113쪽.

9) 앞 책, 129쪽.

10) 앞 책, 146쪽.

그러나 작금에도 포르노성 논쟁에 대해서만은 기피하는 경향이 짙다. 그만큼 포르노성에 대한 시선으로부터는 모든 예술가가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만 포르노성과 연관되는 예술성 짙은 작품의 경우는 이 논의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고 〈죽어도 좋아〉를 이 범주에 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본고를 기술할 때부터 작품에 대한 평가는 의도적으로 피하고 등급위의 〈죽어도 좋아〉에 대한 제한상영가에 대한 타당성만을 논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볼 권리가 아닌 수치심 논쟁

급진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예술인 그리고 한국 영화를 진실로 사랑하는 무정부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 땅의 고뇌하는 모든 분들께 주체님께 말하고 싶다. 세상이 무섭도록 빠르게 변해도 고집을 갖고 지켜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그것이 없다면 우린 이미 한국인이 아니라 지구촌의 세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스크린쿼터 사수'는 한국 영화인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관객의 수를 확보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한국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 한국 영화는 바로 우리의 고유성을 영화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자각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신제국주의의 잔재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사명감이 있다. 그런데도 작금의 많은 한국 영화는 스크린쿼터 사수의 염원을 등진 채 제작되고 있음을 현 한국 영화인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참 한국 영화의 탄생을 목소리 높여 주장한 성과는 이제 여러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염원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등급보류제도가 헌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

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려 '제한상영관'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부당하게 필름 자르는 치욕적인 검열은 없어졌다.

이제 남은 문제는 '제한상영가'를 결정하는 비교적 명확한 잣대의 기준이다. 비교적이라는 표현은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기준에 있어서 화학실험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실험의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등급결정의 결과는 상대적인 예술관에 따라 언제든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죽어도 좋아〉의 문제의 장면에 대한 논쟁은 바로 상대적인 예술관 내지 견해의 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논쟁의 차를 유발시키는 갈등을 잠재우는 다수의 원칙 내지 합법적인 기관의 절차에 따른 결정 등은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국민의 삶의 방식에서 수용되어야 함은 당연한데, 그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혼란을 조장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다면 그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 당연성은 문제제기의 타당성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 타당성은 구성된 대다수의 공감을 얻어야 함은 절대적일 것이다. 필자의 이와 같은 견해는 평범한 시민인 본인이 국가질서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태도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서 영등위의 〈죽어도 좋아〉에 대한 '제한상영가 결정'은 타당하다고 이미 그 사유를 언급하였다. 덧붙여 필자의 의견을 더 개진하자면, 이제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볼 권리가 아닌 수치심의 논쟁이다. 작품의 맥락으로서 필요하다면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자지를 빼는' 장면을 꼭 보여줘야 하는 가에 대한 필자의 답은 수치심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우선 수치심을 느끼느냐 아니냐의 확인은 꼭 영화를 안 봐도 당사자인 집안의 어른들께 여쭙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영상예술이 보여주는 모

든 장면은 하나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대표성이 검증된 것이냐 아니냐는 중요치 않다. 현재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의 내용이 제공한 정보가 대표성의 정도, 즉 특별한 것이냐 일반적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장면에 대한 수치심을 확인하는 물음에 답하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영화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행동이 일반적이냐 특별한 것이냐의 판단의 차이일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의 차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오늘날 교육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모든 교육자들이 지탄받는다. 이미 우리는 교단의 극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겪었다. 교육계의 개혁을 위해, 학생들의 인격을 지켜주기 위한 명목으로 문제의 선생님을 무자비하게 질타한 이 사회가 얻은 결과는 '선생님의 존재'를 이 땅에서 멸종시키고 말았다. 이제 가정교육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어르신네들의 진실된 삶을 그린다든 목적으로 어르신네들을 발가벗기는 그 결과에 대한 '제한상영가' 논쟁을 꼭 법적인 기준으로만 따져야 할 수 있는지, 이 땅의 지식인들에게 묻고 싶다. 특히 '제한상영가'에 반대하고 나선 참교육을 주장하는 '전교조'에게 확인하고 싶다. 민주주의 교육의 원칙은 숨겨진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할 것과 안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요 그것이 진실을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된다고 알고 있다. 하물며 공적인 과급이 큰 예술의 중요한 잣대를 말하는데 '전교조'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개입할 수 있는지 충격이 크다.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이제는 숨길 것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모든 정보는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각자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편리한 정보화시대에 오럴섹스 장면을 놓고 논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소비적이며 사치스럽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불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하니 그냥 지나

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온 국민의 정서에 관한 문제라면 솔직하고 현명하게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말이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계에서 화두로 부상한 <죽어도 좋아> 제한상영가 논쟁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논의를 피력하면서 필자가 느끼는 감정은 이 땅의 지식인들에 대한, 특히 사회개혁을 외치는 단체들의 급격하고 우선 떠들고 보자는 식의 행동방향이 아쉽다.

필자는 민예총이 해방 이후 민주화와 함께 해온 문화예술운동의 성과를 대중화하고,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예술인의 구심점 역할을 지향한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필자가 민예총에 바라는 바는, 문제의 논쟁에서 보여줄 것과 안 보여줄 것의 판단이 꼭 법적이어서 하는가,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자지를 빼는' 장면을 예술적 맥락에서 보여주는 것이 민족예술인들이 지향할 바인가를 신중히 고려했으면 한다. 그리고 합법적인 영등위의 절차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영등위 위원직을 사퇴한 위원들은 말만 앞세우지 말고 어렵게 행동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적어도 위원들은 본인의 수락하에 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 낮은 수준의 <죽어도 좋아>의 18세 관람가를 지지 발언한 국정감사장의 국회의원들로 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발언했는지 확인하고 싶다.

끝으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외국 영화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장면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저들의 모습을 엿보는 것이지만, 한국 영화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장면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점이다.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항상 단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능이며, 때론 추한 모습을 발견하면 빨리 고치려고 노력한다. 우리 역사가 그 교훈이 될 것이다. ❁